



韓 “박시장 당에 손해 끼쳐”

朴 “당 함께할 수 있겠나...”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광태 시장은 지난 12일 대표단 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직후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며 탈당까지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대표와 박 시장의 불협화음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부터 시작돼 이번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문제로 폭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한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양측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6일 박 시장은 5개 구청장 및 시·구의회의 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장상 당시 선대위원장이

한화갑 민주당 대표-박광태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사고 정면충돌

광주를 방문, 지방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날이어서 양측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흘렀다.

결국 박 시장의 기자회견은 뒤로 미뤄졌고 이때부터 한 대표와의 관계에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중심이 돼서 광주지역 선거 승리를 일궈냈는데 한 대표 측에서 이를 무시하려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한 대표 측은 “강은태, 전갑길 전 의원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논란 과정에서 한 대표가 박 시장을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며

섬뜩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 같은 양측의 불신은 이번 광주시의회 원구성 파행 과정에서 외부로 표출됐다.

지난 12일 대표단회의에서 한 대표가 “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등 민주당에 손해 끼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 또한 김효석 원내대표도 “박 시장이 여러 문제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표단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박 시장은 탈당까지 시사하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한화갑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광주시의회 원구성에 관련했다는 설은 유증필 광주시장 위원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의해 과장된 것이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박 시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화갑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마치 내가 광주시의회 원구성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탈당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와 박 시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서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한동안 냉각기간을 보낸 뒤 결국 다시 화해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에서 열린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건립 기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염동연 국회의원, 이재훈 산자부 차관보,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각계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가전산업 디지털화 ‘기틀’

첨단산업단지내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착공

379억 투입 내년 10월 완공

지역 디지털 가전산업을 견인할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가 건립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시 북구 오희동 첨단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9천600여평에 379억원이 투입되는 부품센터는 가전산업과 자동차, 광산업 등 광주시의 주요 전략산업을 지원할 7대 전략산업지원센터 중 마지막 사업이다.

7대 전략산업 지원센터는 이미 완공돼 운영중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디자인센터·광통신연구센터·과학기술융합연구센터를 비롯해 첨단부품소재연구센터(2006년말 완공),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2008년 6월 완공), 디지털부품컨버전스센터(2007년 10월 완공) 등이다.

이 부품센터는 디지털 가전산업의 실험과 연구·개발·창업보육 기능 등을 맡을 연구동과 회

의실·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행정동으로 나뉘어 건립되며, 내년 10월에 완공된다.

특히 연구동에는 각종 계측기와 시험장비 등 160여종의 장비가 2008년 상반기까지 갖춰지며 광주 유일의 전자부품 관련 인증기관으로도 등록될 예정이다.

부품센터는 경쟁력이 취약한 조립위주의 아날로그 가전산업을 고급화·고효율·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가 3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가전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과 핵심인력 육성, 현장인력 재교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는 가전과 자동차, 디자인, 컨벤션, 광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7대 신성장 동력 산업 지원센터 건립의 최종 사업”이라면서 “광주 가전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의회 갈등 법정싸움 비화

소수파, 의장단 당선원인무효소송 다수파 “유증필 위원장 파행 책임”

제5대 광주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된 다수파와 소수파 갈등이 법정싸움을 넘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나중권 의원을 지지하는 소수파 의원들은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의장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당선원인무효소송을 냈다. 의원들은 소장에서 “심야에 몇몇 의원들끼리 모여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파인 강박원 의장과 김후진·이철원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전적으로 유증필(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유 위원장의 개입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장이 되려는 개인적 욕망

에 사로잡힌 한두 사람의 의원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신성한 의회까지 확장하려는 유 위원장의 개인적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유 위원장과 3명의 시장 간부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서구 출신과 비례대표 5명의 의원, 그리고 의장 욕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을 조직하여 시의회를 장악하고자 함으로써 하면서 의장선거를 전면에 진두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 유 위원장은 모 구청장을 찾아가 강박원 의원을 사퇴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의장선거에 개입, 권 거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의 우세를 이용, 원 구성에만 집중하던 다수파 의원들이 이처럼 유 위원장을 거론하며 강공으로 전환한 것은 소수파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수파 힘의 진원지로 유 위원장을 지적

거론,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중앙당의 더 깊은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유증필 위원장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시장위원장의 화합 뜻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적법성 시비에 휘말렸다”며 “강박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불법적 의장단 선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의장단 선거가 파행조짐을 보여 당헌에 따라 시장위원장에 보정된 권한을 발동해 모 구청장 등을 만나 화합으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강 의원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2일과 13일 밤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 교육사회위원장에 김성숙, 산업건설위원장에 서인봉, 운영위원장에 진선기 의원 등 4명을 각각 선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재의 정체성으로
한나라 집권 어려워”
이재오의원 선암사 집거

사실상 당무 거부에 나선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13일 “한나라당이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11 전당대회에서 강재섭 대표에게 석패한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순천 선암사를 찾아 집거에 들어가 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색갈공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화순동 당시 선암사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는 이날 오전 선암사 주지 금음 스님에게 1주일간 머물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 ‘치과부품 지역혁신센터’ 문 열어

광주 치과 기자재 생산도시 견인

광주를 치과 기자재 생산도시로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조선대 ‘치과부품 지역혁신센터’가 13일 문을 열었다.

조선대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첨단산학협력사에서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지정 치과부품 지역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오는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70억원 등 113억원을 들여 광주시 등 6개 기관, 29개 기업의 참여로 지역 치과 산업 실정에 맞는 장비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조선대·전남대·전북대·원광대 등 호남

권 4개 대학 치과대의 연구인력과 첨단부품산업·광산업·정보가전산업 등 관련 산업을 연계시켜 광주 내 첨단치과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치과 관련 70여개(지역 30여개) 업체 증가, 일자리 창출 2천명(지역 600명), 매출증대 1조8천억원(지역 1천800억원)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지역 치과 기자재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생산경쟁력 확보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완(조선대 치의학과)센터장은 “지역혁신센터를 광주 내 치의공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조선대 치대의 2014년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 달성의 토대로 삼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정기노간 동족 800주년 기념
광주 ↔ 동북 총 7회 한정판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아시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아시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 2-2000-0000] | 제주항공 [☎ 2-2000-0000] | 티웨이항공 [☎ 2-2000-0000] | 진에어 [☎ 2-2000-0000] | 에어부산 [☎ 2-2000-0000] | 에어아시아 [☎ 2-2000-0000] | 아시아나항공 [☎ 2-2000-0000]

문의처: 226-6070